



김기태



이승우



박신원



윤세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상업적 가능성을 논하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7월 11일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이 주최한 ‘제2회 한국문학 번역출판 국제워크숍’의 총체적 결론이다.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실제 한국문학의 해외번역출판에 관여하는 저자와 출판사, 번역자 그리고 해외 출판사의 편집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문학 해외번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짚어나갔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나라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확정된 탓인지 200여 명의 번역·출판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조정래, 이문열, 김영하 씨 등 외국에 번역출판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세명대학교 김기태(미디어창작학과) 교수는 저작권법의 개념과 국제적 동향 그리고 저작권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등 저자와 출판사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첫 번째 토론은 자신의 소설 《생의 이면》을 해외에 번역출판한 경험이 있는 소설가 이승우 씨와 문학전문 출판사 문이당 임성규 대표가 맡았다. 이 씨는 “해외저작권 문제의 핵심은 해외 출판사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또는 요청이 생기기 전에 우리 쪽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다보니까 저작권의 값

이 가벼워지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생의 이면》과 같은 경우 “독일어판이 출간된 지 6년, 프랑스어판은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외에서 인쇄뿐만 아니라 판매현황에 대한 통보조차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을 출판한 국내 출판사가 해외 출판에 대해서 위탁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성규 문이당 대표는 한국문학의 해외번역이 우리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이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자금을 지원해 외국 출판사에 도서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독서 시장을 분석하여 적합한 도서를 선택 출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도서목록과 외국의 출판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은 〈한국문학 번역자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번역자인 한양대학교 김경희(불문과) 교수의 발표와 문학동네 강태형 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번역자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수가 많고 또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원저자와 번역자에게 제안하는 인세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인세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학번역이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수준



김정하



강태형



김정연



고혜선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지원을 통해 번역에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올 전성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태형 대표는 프랑스 필립 피귀에 출판사에서 1998년 출간되고 2002년에 보급판으로 재출간된 김영하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예로 들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선 외국 출판사에 한국문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을 번역 출판케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한국문학의 세계화' 지원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작품선정이 해외 출판시장의 상황과 독자 성향의 추이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번역의 완성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경쟁력 있는 작품선정, 번역 전 시놉시스 제작 등의 과정을 통해 해외 편집자 의견청취 ▲원출판사에 섭외와 계약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민음사 박상순 주간은 번역원이 대출판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가운데 출판지원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의 자국 문학 해외 번역출판 지원방식을 예로 들며 출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1팀장은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에

대해 해외 출판사가 지원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등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저작권 중개회사의 지원을 통한 문학작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입구조에 의존해 온 국내 에이전시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워크숍의 마지막 토론은 이문열의 소설 《시인》을 출판하기도 한 스페인 B출판사의 수사나 안드레스 편집장과 단국대학교 고혜선 서문과 교수가 맡았다. 특히 수사나 안드레스 편집장은 <스페인에서의 《시인》: 한국소설과의 첫 만남에 대한 소고>를 통해 외국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저자의 권리도 존중되지 않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의 작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페인 역시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외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가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수준 높은 작품을 번역해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책을 시장에 내놓아 관심을 끄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번역형태의 다양성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진형준 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린 것으로 현장의 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출판도서 100여 종 번역 지원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은 지난 7월 초 출판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국내 도서 100종을 선정하고 이의 번역을 지원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의지표명에 따라 문광부 출판신문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참가 준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출판신문과 이숙은 씨는 국내도서 번역출판 작업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8월 이후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번역 종수와 분야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광부는 그러나 1종에 따라 영어, 불어, 독일어 등 3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 전 사용 번역에 그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지를 실현할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취재 신동섭 기자**